

# 현대미술, 광주에 말 걸다



조영남 작 '조영남-백남준과 대화'



고 백남준 작 'TV 부처'

故 백남준·이이남 등 현대미술사 한자리 미술관 잔디밭 '1600 판다+의 세계여행' 전시  
가수 조영남·배우 하정우 작품 볼 기회

## 광주시립미술관 6월 30일~8월 16일 '헬로우 아트전'

'현대미술은 어렵지만 할까. 광주시립미술관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맞아 현대미술을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소개하기 위해 대형 기획전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 화백의 작품부터 가수 조영남, 배우 하정우의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개막식이 열리는 30일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앞 잔디밭에서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 세계 각국을 돌며 진행되고 있는 '1600 판다+'의 세계여행 프로젝트 전시가 진행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준비한 '헬로우 아트전(8월 16일까지)'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매개자이자 새로운 현대미술을 장안했던 백남준에 대한 오마주적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현대미술을 친숙하게 선보이기 위해 기획했다.

1부 '상상과 놀이'에는 상상력이 아트가 되는 설치작품들과 키네아트,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전시된다. 공수경, 김동조, 김숙빈, 노동식, 백종인, 옥현숙, 조병훈, 최문석 작가가 참여한다. 누구라도 재미있게 현대미술을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라는 요셉 보이스의 말처럼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다양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백종인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담아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조각을 선보인다. 특히 관람객들은 종이와 모형에 텐트를 입혀 완성한 작

품에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다.

2부 '헬로우 백남준'에서는 미디어아트의 개척자이자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했던 예술가 백남준의 'TV부처'를 만날 수 있다.

'TV부처'를 중심으로 백 화백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새로운 창조적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권기수, 손봉재, 이이남 작가의 작품이 전시돼 전통과 현대를 잇는 현대미술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권기수 작가는 수묵으로만 동양화를 그려야 한다는 편견을 깬 예술가다. 흥익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동양화도 서양화도, 팝아트도 아닌 작품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보여준다.

과거의 전통과 21세기 전자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미디어아트를 장안한 이이남 작가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바탕으로 한 '움직이는 회화'를 선보인다. '다시 태어나는 빛'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후아유'를 주제로 열리는 3부 전시에서는 예술가들이 현대인의 자아를 표현한 회화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에 참여하는 권승찬, 박수만, 배수민, 조영남, 최재영, 하정우, 허진 작가는 인물에 초점을 맞춘 그림을 선보인다.

가수 조영남은 백남준 화백과 자신의 상상 속 대화를 작품 속에 풀어냈다. 영화배우 하정우는 각국을 여행하며 영화와 작품에 영감을 받은 인물들을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이번 전시 개막식은 30일 오후 3시40분으로, 이날 오후 2~7시 미술관 앞 잔디밭에서는

'1600마리 판다프로젝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1600마리 판다프로젝트'는 세계자연기금(WWF)과 프랑스 조각가 파울로 그랑종이 협업해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다. 재활용 종이로 만든 판다 인형 1600개를 세계 각지에 전시 중에 있다. 문의 062-613-71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하정우 작 'Think of the past'



'1600 판다+'의 세계여행 프로젝트



'항기'

## 화업 20년 그너머... 김상연전 7월15일까지 신세계갤러리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7월15일까지 현대미술작가 김상연씨를 초대해 '김상연-형상, 그너머'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김 작가는 지난 1994년 중국 유학을 통해 우리의 몸속 깊숙히 체화되어 있는 정신세계의 뿌리를 탐구하고, 사라져가는 전통재료와 기법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기초를 다진 작가다. 이후 귀국해 장르와 재료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작품들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2년 제5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수상하면서 다시 한번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그는 이후로도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독일 등의 유럽에서도 초대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작품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번 전에서는 지난 20년간 선보였던 여러 시리즈의 다양한 작품들을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1부(오는 30일까지)에서는 대형캔버스에 먹물로 그려진 소파시리즈와 드로잉 작품들을, 2부(7월1~15일)에서는 수인목판화기법으로 제작된 판화기법으로 제작된 판화 작품과 화첩, 부조나무 조각설치 작품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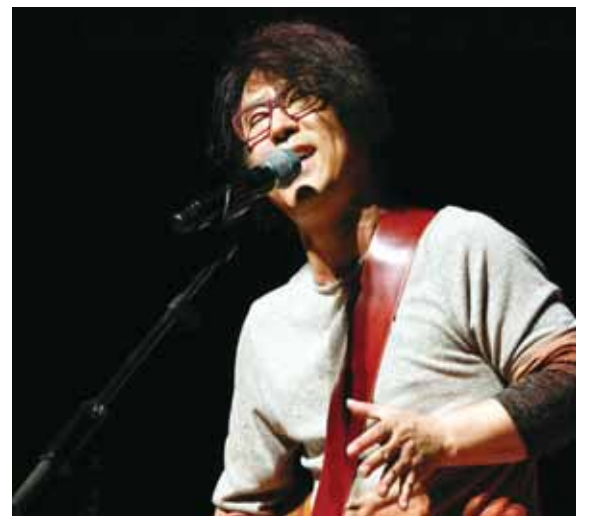
김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와 중국미술대학 관화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중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360-1271. /김경인기자 kki@

## '김원중 달거리' 대장정 시작 오늘 빛고을 시민문화관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가 2015년 시즌을 시작한다. 29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지난 2003년 첫발을 댄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은 수익금을 북녘어린이 빵공장 사업본부에 기증해왔다.

74회 달거리 공연과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지난해까지 모은 성금은 모두 8514만원에 달했고, 세월호 유가족, 일본 센다이시 지진 피해자 등에게도 전달됐다. '이렇게 좋은 날에'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는 가수 김원중, 소프라노 유영민, '프롤로그'(최성식·서민정·박강민), 우물안 개구리(봉봉·라태양·소길), 바닷프로젝트(임웅·김영훈·김현무), 퓨전국악그룹 '루트머지', 광주알핀로제요들클럽이 출연하며 초대 손님으로 '더 싱어즈'가 무대에 선다. 화가 주홍씨가 샌드애니메이션을 선보이며 미디어 아트 작가 신창우씨가 무대를 꾸민다.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dol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를,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